

〈빌립보서 강해〉

현실의 도전 상황에 적용하기

본문: 빌 3:15-4:1

2024년 2월 14일

1. 개요

3:1-14

교회의 기반을 허무는 도전들에 대한 경고와 대처

3:15-4:1

현실의 도전 상황에 적용하기

4:2-9

교회를 향한 권면

- 어떻게 현실의 도전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 ‘그리스도의 본’, ‘바울의 본’

2. 본문 주해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 “온전히 이룬 자들”(텔레이오이) → 온전한, 성숙한. “바울은 왜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가?”
- “이렇게 생각할지니”(투토 프로노멘) → “이 마음을 품으라”(2:5)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
-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 “너희 가운데 어떤 불일치가 계속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곧 너희 가운데서 일치를 가져오게 할 것을 믿는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 = “너희가 어떤 수준에 이르렀든지 행동해야 할 기준은 한 가지이다. 한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 = i) “나를 함께 본받는 자가 돼라.”
ii)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라.”
- “형제들아 너희는 그들과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자들을 눈여겨보라.”
-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함.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

바울은 궁극적 모범이 아닌, 그 모범을 전달하는 ‘연결자’

- “행하는”(페리파테오) → =‘할라카’=‘걷다’ 한 사람의 총체적인 삶의 성향.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할라카) 완전하라”(창 17:1)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할라카)같이 내 길로 행하며(할라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왕상 3:14)

그리스도-바울-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빌립보 교인

- “눈여겨 보라”(스코페오) → ‘자세히 관찰하다’ ‘꽃대’(스코포스)와 같은 어원.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들을 위한 앞서가는 꽃대가 되어야 한다!”

“한마음을 품고 한 꽃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한 바울의 탄식과 눈물.
-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 그리스도를 거스르며 사는 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완전주의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 “그들의 마침(텔로스)은 멸망(아폴레이아)이요” → ‘온전히 이루다’(텔레이오오)와 같은 어근. 완전주의자에 대한 암시적인 공격이 내재해 있음.
- “그들의 신은 배요”=‘혼 호 테오스 헤 코일리아’=“그들의 배가 신이다”
 - i) 유대교의 음식 정결법 - 음식 정결법이 신이 되었다는 것.
 - ii) 성적 부도덕 - 자신들의 성적 욕망대로 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숭배한다는 것.
 - iii) 탐식 - 고전 11:21. 성찬 자리에서의 무질서. 공동체 식사 현장에서의 탐식.
-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 자랑스러워하고 가시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는 것.
-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 땅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전복.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종말에 분명해질 가치의 판단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자!”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 “시민권”(폴리티마)

※ 폴리티마

- 1) 정치조직 - 국가. 한 국가의 정치 체제.
- 2) 시민권 -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
- 3) 식민지 - ‘commonwealth’ 대영제국의 입장에서 캐나다와 호주.
- 4) 자치기구 혹은 사적인 조합 - 이집트 지역에서의 유대인.

※ 폴리티마 vs. 에클레시아

폴리티마: 시민 사회적인 공적 성격을 지닌 단어. 공직자, 조합 임원들의 호칭.

에클레시아: 그리스 폴리스에서 온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정치 집회.

왜 바울은 폴리티마를 사용하는가? =>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시민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는 역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세상의 조합들과 달라야 한다!”

- “하늘에 있는지라” → 그리스도인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 ‘하늘’

- “구원하는 자”(소테르) → 소테르=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용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칭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게 하는 자는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 “기다리노니” →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오는 자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는, 오는 자를 위해 준비하게 되어 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그리스도를 닮은 삶. 복음에 참여함.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엄.

- “우리의 낮은 몸”(헤몬 테스 타페이노세오스 토 소마)

→ 2:8, “자기를 낮추시고(에타페이노센)” 낮은 상태, 연약한 존재.

‘몸’(소마)=>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 연약함.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 롬 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복음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될 것이다!”
- “변하게 하시리라”(메타스케마티조) → 2:8, “사람의 모양(스케마)으로 나타나사”의 표현과 같음.
“그리스도께서 낮은 모습으로 변하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 “그러므로”(호스테) → 1~3장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렇게 살라는 것.
-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 성도를 사모함. ‘코이노니아’ 죽음 앞에 놓인 상황을 초월하는 코이노니아. 사김에 대한 열망.
-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 현재의 “기쁨”이요, 종말의 “면류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지점. 코이노니아.
“성도의 사김은 현재의 기쁨이며, 종말의 상급이다!”
-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스테코)” → ‘스테코’=전투 용어. 물러서지 말고 대열 혹은 진지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명령 용어. 2인칭 복수 명령.
혼자 굳건히 서라는 말이 아니라 대열을 견고히 지키라는 것.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함께 서서 대열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간다!”

▣ 요약 및 적용

1. 하늘의 시민권

우리는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자다.

적용: 하늘의 기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

2. 주 안에 서라

우리는 함께 대열을 맞춰 주 안에 서야 한다.

적용: 형제자매를 세워주며,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